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국인, 미국 경제에 갑자기 낙관적으로 바뀌어
- WSJ: 미 노동 시장 공급이 인플레이 둔화에 도움 주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설문 조사,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은 어리석다”
- WSJ: 많은 납세자들은 실제 IRS에 미납금이 있다

[물류]

- WSJ: 글로벌 해상 운송비, 계속 오르다
- WSJ: 홍해 리스크, 당장은 의류 기업들에 큰 문제 없을 것

[인공지능]

- WSJ: 뉴욕시, 유명무실해진 인공지능 채용 법안
- Bloomberg: MIT, “아직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 대체할 수 없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미 노동시장 침체 불구, 이직 선호 18% 증가해...
- CNBC: 보험 인플레이션 비용이 회사와 소비자에 부담준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Americans Are Suddenly a Lot More Upbeat About the Economy

미국인, 미국 경제에 갑자기 낙관적으로 바뀌어

- 미시간대학교의 지난주 금요일의 소비자 심리가 지난 11월 이후 29%나 상승하여 지난 1991년 이래 2개월 단위로는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관련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 견조한 성장과 지속적인 고용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팬데믹에 따른 충격, 그리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급격한 변화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미시간 대학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상반기 소비자 심리는 지난 12월에 비해 13% 상승했다. 전반적인 소비층이 긍정적인 심리를 보이고 있다.

WSJ 기사

WSJ: Labor Supply Helped Tame Inflation. It Might Not Have Much More to Give.

미 노동 시장 공급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 주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과 작년에 노동 시장에 참여 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금상 상승을 둔화시켜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을 주었다.
- 그런데 추가 물가 압력 하락이 이루어지려면 수요 감소와 더 약한 성장세가 필요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목표치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포기하기 전에, 즉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개선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Wall Street's 'Foolish' 2024 Trade Is Betting on Early Fed Rate Cuts

설문 조사,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은 어리석다”

-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것이라는 베팅 행위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 블룸버그 마켓 라이프 펄스 응답자의 3분의 2는 연준의 조기 통화 완화에 베팅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응답했다. 현재 머니 매니저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연준 관리들은 너무 빠른 금리 인하에 반발하는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설문 조사 결과다.
- 이같은 응답자의 반응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강세장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Bloomberg 기사

WSJ: Why More People Owe the IRS Money, in Three Charts

많은 납세자들은 실제 IRS에 미납금이 있다

- 요지: 많은 납세자들은 4월에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다는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연방 국세청에 미납금이 있다는 점을 알게된다.
- 현재 5백만명의 납세자 부채는 1천불 미만이다. 그리고 약 6백30만명의 납세자가 1천불에서 5천불 사이에 빚을 지고 있다. 일부는 수십만불 또는 1백만불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액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고소득 직장에 취직했거나 투자 수익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새로운 W-4 원천

징수 약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그(Gig) 근로자들은 연중 내내 분기별 추정치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WSJ 기사

[물류]

WSJ: Ocean Shipping Rates Surge as Red Sea Attacks Continue 글로벌 해상 운송비, 계속 오르다

- 글로벌 해상 운송 비용이 홍해 리스크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 Drewry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1월 18일까지 세계 평균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18% 상승해 3천 7백77불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 중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컨테이너 현물 운임은 지난주 38% 상승해 3천 8백60불까지 올랐다.

WSJ 기사

WSJ: Red Sea Disruption Won't Sink Apparel Companies—for Now 홍해 리스크, 당장은 의류 기업들에 큰 문제 없을 것

- 홍해 리스크로 인한 운송 지연은 패스트 패션 의류와 같이 유행에 민감한 업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에서 물건을 가져오거나 유럽에 판매량을 의존하는 미국의 의류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 이에 따라, 항공이나 육로를 이용한 운송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한편, 많은 소매기업은 코로나 동안 공급망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고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 또한 다른 투입 비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다.

WSJ 기사

[인공지능]

WSJ: New York City Passed an AI Hiring Law. So Far, Few Companies Are Following It.

뉴욕시, 유명무실해진 인공지능 채용 법안

- 챗봇 면접 도구나 이력서 스캐너 등 알고리즘이 기업 채용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는 법이 뉴욕시에서 통과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이를 지키는 기업은 거의 없다.

- 이 법안의 목적은 관련 알고리즘 기술이 의도치 않게 부당한 편견을 채용 결정에 심을 가능성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있다. 조사 결과 400여 기업 중 오직 18개 기업만이 이 법을 준수한 것이다.
-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가 이 법안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인 Data & Society의 AI 리더인 멧칼리프는 고용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Humans Still Cheaper Than AI in Vast Majority of Jobs, MIT Finds

MIT, “ 아직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 대체할 수 없다”

-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 문제 측면에서 당장으로는 인공지능이 대다수의 직업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연구원들은 컴퓨터 시각(computer vision)이 사용될 수 있는 직업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조사해 본 결과, 오직 23%의 근로자들만이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설치 및 운영 비용 때문에 아직은 인력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 컴퓨터 시각은 소매, 운송 및 창고와 같은 분야에서 선호되고 있는 기술이며, 월마트와 아마존이 선두에 있다.
- 그러나, 연구자들은 앞으로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비용이 감소한다면 점차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은 2030년에 4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More Workers Want to Change Jobs but Now Face Tougher Odds

미 노동시장 침체 불구, 이직 선호 18% 증가해...

- 미 노동시장이 식고 이직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점차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새로운 Linkedin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전문가 1천명 중 약 85%가 올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18% 상승했다.
-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의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큰 만족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한 업무 부담이 높은 이직률에 영향을 준 것이다.
- 애틀랜타 연준의 경제학자인 John Robertson은 고용시장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A stealth inflationary cost is hitting corporate profits and consumer wallets**보험 인플레이션 비용이 회사와 소비자에 부담준다**

- 각종 물가와 서비스가 치솟는 상황에서 회사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험이 크게 치솟고 있다.
- 일부 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운송비가 낮아지고 있지만, 보험료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 주택 갱신 보험료의 경우 21%가 상승했고, 자동차 보험 갱신의 경우도 17% 올랐다.

CNBC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경제 연착륙 낙관론 커지지만..."위협 요인들 여전"****NYT, 지연된 경기 침체·인플레이션 재발생 등 거론**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낙관론은 커지고 있지만 리세션(경기 침체) 유발 요인들은 여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이하 현지시간) 진단했다.

NYT는 고금리에 따른 침체가 뒤늦게 찾아올 가능성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재발생 등을 위협으로 꼽았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커지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